

1달러의 애상(哀想)

김 창 송 | 성원교역(주) 회장

KOIMA 자문위원

여름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인천공항으로 갔다. 마침 방학 중이어서 인지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 공항에 몰려들어 대합실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구석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출국 시간을 기다리고 있자니, 요즘 아이들은 모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6·25직후 우리 세대는 가난 속에 1달러를 벌기 위해 세계 여러 곳을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그 당시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수출을 많이 하여 달러를 벌어들여야 기름이나 원부자재를 사 들어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었으니 대통령까지도 '수출제일주의'를 외치며 독려하였다.

50여 년 전 나는 S무역회사에서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면서 바쁘게 일

하던 때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의 수출 품목은 가발이나, 오징어 혹은 광산물 등 일차산업이 고작이었다. 우리 회사는 주로 화학원료를 수입했고 대신 광산물을 해외로 수출했다.



어느 해 12월 말쯤, 회사에서 갑자기 비상이 걸렸다. 일년에 1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해야만 그 이듬해 무역업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는 12월에 들어서야 몇 천 달러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에 나의 실수를 알리고 방안을 강구했다. 궁여지책 끝에 전라도 보성에서 생산되는 규석을 매입하여 일본으로 수출을 하면 부족액은 메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이른 새벽차로 전라도 보성에 내려가 수출용 규석의 물량을 확인하고 대금까지 지불했다. 이어서 이 광물을 산에서 역전까지 실어내고 화물열차로 여수 부두까지 실어낸 다음 배에 선적을 해야 했다. 그 수송 작전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항상 많이 실으려는 화주와 적게 실으려는 트럭 운전사들 간의 승강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화물 열차가 광물을 부려 놓아도 당시에는 부두에 기중기나 운반용 지게차가 없어서 선박에 실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람들이 물장수 모양 화물을 어깨에 져서 날라야 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선적을 마치려면 인부들을 채근하는 한편 격려도 해야 했다. 그래서 막걸리 통을 여기저기 마련해 놓고 일을 하다 보니, 취기에 비틀거리다가 행여 발을 헛디뎈 난간에서 물속에 떨어지거나 하면 큰일이었다. 부두에 나란히 집안된 500톤 목선은 파도에 흔들흔들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

게다가 옆친 데 댕친 격이라고 했던가. 일본인 일등 항해사가 나에게 찾아오더니 “더 이상은 배의 무게 때문에 화물을 실을 수가 없다”며 선적 중지를 명하는 것이었다. 그를 따라가 보니 정말로 배 앞쪽의 눈금이 위험 수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수출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광물을 실어야만 했으니 정말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게다가 그날이 12월 31일로 새 날이 되기 전에 수출 면장에 오늘 날짜 도장이 찍혀져야 했다. 여기서 낭패를 본다면 회사는 물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하던 나는 큰 실책을 범하게 된다. 눈앞이 캄캄했다. 생각 다 못해 선장을 다시 찾아가 회사의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애원을 했다. 그러나 선적량을 지키는 일은 선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므로 선장으로 서도 어쩔 수가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나의 간곡한 호소가 선장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골똘히 생각하며 망설이던 그는 큰 결심을 한 듯 선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먹을 식수만 조금 남기고 배안의 물을 전부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버린 물량의 무게만큼 선적을 더하여 아슬아슬하게도 수출 목표를 채울 수 있었다. 그 당시 마음을 졸이며 새벽까지 일을 끝냈을 때의 안도감과 희열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과 같은 보람이었다. 새날이 밝아왔다.



정월 초하루 새벽, 배가 우리 화물을 그득 싣고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첫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몸은 젖은

숨처럼 늘어지고 힘들었지만 손에든 수출 면장이 마치 큰 상장이라도 받은 듯 자랑스럽고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그 시절 수출이라는 흔한 단어 뒤에는 이처럼 눈물겨운 애환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1달러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역일꾼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1달러의 애상(哀想)’의 제목은 1달러를 벌기까지의 슬픈 이야기로 가슴에 담아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1조 달러를 수출한다고 매스컴에서 대서특필을 한다. 정말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날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아버지 세대들이 1달러를 벌기 위해 저 중동사막에서, 독일탄광에서의 숨은 사연들을 얼마나 가슴이나 할는지 모르겠다. 달러는 세계에 소통되는 건널목이다. 여기에 코리언의 따스한 스마일도 함께 오버랩 된다면.

이름 없는 중소기업도 마치 무명용사처럼 지난 세월 많은 피땀을 흘렸다.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큰 돌로만 세워지지 않았다. 작은 주먹 같은 보잘 것 없는 못난 돌도 끼어 있었다.